



한국틴스타

2009년 9월
제19호

www.teenstar.or.kr

다시 태어나면...

제66차 틴스타 워크숍 수료자
- 가르멜 수도회 소속

이번 틴스타 워크숍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단지 그동안 성에 대해 가리고 싶어 하고 당당하지 못한 나 자신을 교육을 통해 좀 더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틴스타 교육은 내 생각과는 달랐다. 그동안 받은 학교 성교육과는 달리 학생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생식력, 즉 생명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 주는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옛 어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찬가지로, 사실 나는 그동안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틴스타 교육을 통해 여성이 지닌 몸의

신비,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나에게겐 긍정적 충격이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여성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다행스러웠던 점은 수녀님들과 함께 함으로써 아주 필요한 이야기지만 반대로 나누기 힘든 서로의 성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수녀님과 수사님, 신부님과 모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명숙
틴스타 교사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최명숙입니다.” 이 말은 처음 틴스타에서 저를 소개한 인사입니다. 어려서는 시골에서 많은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라서인지 성에 대해 눈뜬 사이 없이 그저 뛰어놀기 바빴고 성인이 되어서는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두려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두 딸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각종 매체에서 성폭행, 성희롱 등과 같은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왠지 가슴이 아프고 내가 어찌해 주지 못함에 혼자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보를 보고 나의 이런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틴스타 교육일 거란 생각에 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에 신청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어려운 몸의 신학 강의가 시작되면서 ‘아차! 내가 올 곳이 아닌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이 뒤틀리고 강사님의 말소리가 자장가로 들릴 수밖에요.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부터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본당 신부님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 말씀에 용기를 얻어 강의를 열심히 듣다보니 호르몬, 점액관찰법 등 강의를 흥미로워지면서 너무 무지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 부끄러웠습니다. 틴스타 교재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자료도 찾아보니 강의 시간에 즐기 않게 되었고 마치 또 다른 세상에 와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심화교육을 받으면서 숨어 있던 내 안의 나와 우리 부부의 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비롭고 위대한 생명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처음 틴스타 고등학교 프로그램 진행 제의를 받았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승낙하였습니다.

수업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고1인 딸 아이에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도 물어 보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안녕하세요? ‘꽃보다 남자’의 윤지후를 좋아하는 성생활 18년차 최명숙입니다.” 하고 첫인사를 건넸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과연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말뚱말뚱 쳐다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색하지 않게 우리의 성이 참으로 위대한 생명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론 엄마처럼 점액을 관찰하라고 잔소리해 대는 나를



보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에서 생명, 책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 격려도 해봅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교사지만 저에게서 성을 배우는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고자 합니다.